

전역, 사회로 나아가는 성공의 길 제대군인지원센터



- 취·창업지원**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전직지원금 지원,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변화관리, 특강, 창업워크숍 등
- 직업훈련**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 사이버 교육**
자격증 취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 멘토링 상담**
성공 제대군인 멘토 온·오프라인 실전 경험 전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필수



www.vnet.go.kr

군 인 친 구
1666-9279
전국 10개 센터 대표 번호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10, 915호
(후평동, 춘천B&I지식산업센터)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리:스펙 제대군인 2025 March Vol.229

리:스펙 제대군인

2025 March Vol.229

Re play

강단에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다
파도를 다스린 전사, 지성의 전장으로!

Re connect

청춘, 꿈을 향해 날아오르다
청년 창업의 A to Z

Re new

챗 GPT 시대, AI 활용법

구종수
예비역 해군 중령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YouTube 바로 가기

Contents



**리:스펙
제대군인**

2025 March Vol.229



03

Re play

- 04 **리마인드**
나에게 나눴은 []이다.
- 06 **지금 우리는**
용접 자동화의 혁신을 선도하다
베스트에프에이(주)
- 10 **인사이드 스토리**
강단에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다
파도를 다스린 전사, 지성의 전장으로!
구종수 예비역 해군 중령
- 14 **위대한 전환**
전직 성공을 위한 나의 열정과 노력
조용기 예비역 공군 상사

Re connect

- 18 **커리어 맵**
2025년 한국 고용시장 전망 살펴보기
- 20 **스페셜 리스트**
청춘, 꿈을 향해 날아오르다
청년 창업의 A to Z
- 24 **금빛 상담소**
여성 제대군인, 군 경험이 강점으로 빛나다!
박지연 작가
- 26 **지식 산책**
광복 80주년 계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3.1 운동과 재일본 동경 조선청년독립단
- 28 **미디어 로그**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인테리어 디자이너 & 건축사

Re new

- 32 **전문가 칼럼**
챗 GPT 시대, AI 활용법
이임복 작가
- 34 **뜻있는 여정**
바다와 역사가 만나는 곳, 진해군항마을로 떠나는 시간 여행
경남 창원
- 38 **센터는 지금**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42 **독자 광장**
나를 성장시키는 책,
한 달에 한 가지, 지구 사랑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

통권 229호
 발행일 2025년 3월 4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 www.facebook.com/mpvakorea
- www.youtube.com/user/mpvakorea
- www.instagram.com/bohun_story
- x.com/hun2day
-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나눔은 []이다.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 네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개인을 넘어 타인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깊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나눔은 단순히 가진 것을 내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삶에 다가가고, 보이지 않는 온기를 전하는 과정입니다. 나눔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물질적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깃든 나눔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마디의 진심 어린 말, 조용한 공감의 시선만으로도 지친 마음은 위로받기 때문이지요. 나눔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단절된 마음을 이어 붙이고, 무너진 용기를 다시 세우는 힘을 가집니다.

이 세상에 나눔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돌고 돌며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이어지는 연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3월,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돌아볼 때입니다. 나눔이란 이름 아래, 더 많은 따뜻한 연결이 세상에 퍼져나가기 바랍니다.



용접 자동화의 혁신을 선도하다

베스트 에프에이(주)

글 박선경 사진 권진혁



산업 현장에서 용접은 제품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공정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3D 업종으로 인식되며 인력난이 심화되어 왔다. 숙련공의 부족, 고된 노동 환경 등으로 인해 용접 업계는 심각한 인력 공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용접 자동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경남 창원에 소재한 베스트에프에이(주)는 1997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최적화된 용접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이 기업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설립부터 지금까지, 용접 자동화의 길을 열다

베스트에프에이(주)는 “언제나 함께 행복한 회사”라는 비전과 최고의 기술로 고객에게 가장 쉽고 단순한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1997년 설립되었다. 창립 초기부터 용접 시스템, 용접 자동화, 용접 솔루션을 연구하며 현대 및 기아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조선, 중공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핵심적인 용접 기술을 지원하며 뿌리산업과 공장 자동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용접 산업은 원천 기술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분야다. 단순히 금속을 접합하는 것이 아니라, 경량화·고

강도화된 신소재에 맞는 용접기술과 숙련공을 대체할 자동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베스트에프에이(주)는 이러한 산업적 요구에 맞춰 로봇과 전용 장치, 센싱 및 제어 기술을 결합한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며 기술력을 쌓아왔다. 또한 로봇과 연계한 산업용 자동화 프로그램 설계 및 제작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며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용접 공정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공정 진행 상황과 용접 조건을 실시간으로 예측·제어·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내 스마트공장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스틸 펄스 용접



TPS / iCMT



키홀 ArcTig 용접

차별화된 경쟁력,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으로 강화하다

베스트에프에이(주)의 강점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명한 경영 문화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 용접 자동화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개발의 성과는 매출 신장으로 이어졌고, 이를 다시 임직원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구축했다. 또한,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임직원들의 자기 계발을 적극 지원하며 기술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학위 취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13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문 연구인력과 첨단 분석 장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최적화된 용접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용접 장비의 설치·시운전부터 로봇 애플리케이션, 품질 분석,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용접기 제조사인 오스트리아의 Fronius International GmbH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인버터 용접기는 물론, 리눅스 기반 OS를 내장한 첨단 용접기를 국내에 도입·공급하며 다양한 산업군에 최적화된 용접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일 년에 두 번 Fronius International GmbH사의 엔지니어를 초빙해 기술 전수를 받고 있으며, 해외 전시에도 참가해 선진 기술을 배우며 직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미래를 위한 도전, 용접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다

베스트에프에이(주)는 현재 두 가지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선박 블록 건조 공법의 배관망 용접 자동화 기술이다. 기존의 배관망 용접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를 자동화하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적층 제조 기술(WAAM, 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이다. 항공, 에너지, 조선 산업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및 맞춤형 제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적층 제조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기술로는 대형 부품 제작과 생산 속도, 자동화·지능화에 한계가 있었다. 베스트에프에이(주)는 3m급 대형 부품 제작이 가능하면서 적층 속도 10kg/hr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와이어 아크 적층 용접 시스템을 개발하며 이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김유찬 대표이사는 말한다. “베스트에프에이(주)는 국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증 연구를 통해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화 용접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용접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산업과 사람이 공존하는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I N T E R V I E W

제대군인과 함께 성장하는 베스트에프에이(주)

“제대군인 인재와 언제나 함께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하겠습니다”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조업과 같은 뿌리산업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 차이도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군인의 채용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들은 군 복무를 통해 사명 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이 체득되어 있으며, 책임감과 성실함, 조직 적응력 등에서 일반 직원들보다 뛰어난 면모를 보입니다. 특히 정확성과 안전의식이 중요한 용접 자동화 분야에서도 강점을 발휘합니다. 우리 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뢰와 책임감을 가진 인재,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 화합과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 창조적 열정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35명의 직원 중 2명의 제대군인이 함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직무와 관계없이 도전하려는 의지를 가진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자기 계발을 원하는 직원들에게는 회사 차원에서 직무 역량 개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유찬
대표이사

“자동화(로봇 티칭)와 시를 접목해 자동화 시간을 단축하고 싶습니다”

1989년 하사로 입대해 34년간 군 복무를 하고, 정년을 2년 앞둔 2022년 12월 31일 전역했습니다. 군에서 후속 군수지원 개발, 군사 교범 정리, 정비 체계 교육 등에 5~6년간 참여했으며, 특히 육군 종합정비창 예하 항공기정비단에서 10년 동안 항공기 정비를 주요 임무로 수행했습니다. 전역 후 1년간 기계 IT 융합공학과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진로를 모색했습니다. 특기를 살려 경북항공공에서 군특교사로 1년간 근무했지만, 기술적 탐구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추천 문자를 받게 되었고, 제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해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채용이 결정되면서 올해 1월 6일부터 국책과제 용접 분석을 담당하는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근차근 배우며 역량을 키워가는 중인데, 업무 파악이 완료된 후에는 자동화(로봇 티칭)와 시를 접목해 자동화 시간을 단축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주성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경험을 살리는 대신 도전! 용접로봇 전문가로 성장할 겁니다”

2017년 12월 입대해 2024년 5월 전역하기까지 강원도 양구 21사단 정보통신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전역 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군에서 쌓은 경험을 살리는 것보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전기 관련 학원을 알아보던 중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를 통해 현재의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분야였지만, 관심이 생겨 입사 지원을 했고, 2024년 8월 용접기 엔지니어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용접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대표님의 지원 덕분에 3개월 동안 실무를 익히며 피복아크, GMAW, TIG 용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군과는 전혀 다른 분야지만, 배우면서 성장할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산업용 로봇 교육 과정을 이수해 3개 이상의 로봇 브랜드를 다룰 수 있는 용접로봇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권소현
용접사업부 엔지니어

강단에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다

파도를 다스린 전사, 지성의 전장으로!

구종수
예비역 해군 중령



대한민국 해군을 수호했던 예비역 중령이 군복을 벗고 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라는 새로운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그는 파도치는 바다를 누비며 국가를 지키던 베테랑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미래의 장교들을 양성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초빙교수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구종수 예비역 해군 중령의 이야기다.

글 박선경 사진 권진혁

정직한 선두부, 군인의 길을 걷다

구종수 예비역 해군 중령은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동경했고, 고등학교 때 선두부를 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꿈꿨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있었던 부산시 교육청 주관 전적지 순례 프로그램에서 강화도, 휴전선 부근 격전지, 독립기념관 등을 방문한 것은 지금의 그를 있게 한 일등공신이었다. 전적지들은 전투에서 패배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독립기념관에는 일제강점기 조상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서자, 그는 곧바로 해군사관학교 진학을 목표로 삼았다.

1991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1995년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이후 독도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 다양한 함정에서 근무하며 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한미 연합상륙훈련 작전참모로서 수십 척의 함정과 대규모 병력·장비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해군 생활은 자부심만큼이나 험난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서해 최전방 해상에서 인양 및 지원작전을 수행하며 느꼈던 참담함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GU JONG SU



바쁜 가운데도 공부하며 인생 2막 준비

해군에서 30년을 보낸 후, 전역이 다가오자 그의 앞에는 막막한 현실이 놓여 있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러던 중, 군 생활 동안 대원들을 교육할 때 느꼈던 보람이 떠올랐다. 그는 자연스럽게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위해 학위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 전 야간대학원 박사과정을 시작했지만, 바쁜 군 생활로 인해 휴학한 상태였다. 지도교수님을 찾아가 복학을 요청하자, 교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50세가 넘어서 하는 공부 힘들어도 끝까지 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구종수(具宗秀)라는 이름은 사소한 글자가 아니다. '종(宗)'은 우두머리를 뜻하고, '수(秀)'는 빼어남을 의미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결국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 기회

전역을 앞두고 전직지원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접했고,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의 조언도 들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다. 군 생활을 오래 했으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송섭영 상담사는 “그 자격증이 하고 싶은 일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질문은 그를 다시 고민하게 했다. 단순히 이력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그는 심리상담사, MBTI 전문강사, 커리어전문가, 컴퓨터활용능력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갔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다. 해군 부사관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할 강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에 주저 없이 지원했고, 학생들에게 국가관, 안보관, 군 리더십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강의의 해보니 쉽지 않았다. 군에서 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 방식이 학생들에게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졌다. 그는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강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연구했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발전해 나갔다.



군사학과 교수로서 새로운 도전

전역을 앞둔 시점, 그는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의 추천으로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초빙교수 채용 공고를 접했다. 준비해 온 학위, 자격증, 경력을 바탕으로 지원했고, 다행히 면접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군에서 면접관 역할을 하던 것과 직접 면접을 보는 것은 전혀 달랐다. 다행히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했고, 모의 면접을 거치며 철저히 준비했다. 그 결과, 최종 합격하여 현재 동명대학교에서 군사학개론, 군사법, 무기체계론, 유무인복합체계론, 위기관리론 등의 과목을 강의하게 되었다. 2013년 개설된 동명대학교 군사학과는 나승학 학과장을 포함해 군 출신 6명의 교수진이 체계적인 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을 펼친 덕분에 졸업생 160명 전원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임관고시를 통과한, 명실상부 군 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불린다.

교수로서의 삶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군에서는 실전 중심의 교육을 했지만, 대학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가르쳐야 했다.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강의 자료를 만들고, 강의 방식도 꾸준히 개선해 나갔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며, 군에서 경험했던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실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부산 지역 고등학교 두 곳에서도 강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기회다

돌이켜보면, 군 생활 후반부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변화’였다. 하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때 더 큰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단단하고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리듯 그가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인상도 부드럽게 바뀌고 삶을 대하는 관점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긍정적으로 관계가 변화해 가면서 행복을 느낀다. 그를 닮은 아들은 해군사관학교 후배가 되어 현재 서해 바다를 수호하고 있고, 대학생인 딸은 MZ세대 제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아빠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군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지금, 그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버스가 지나갔다고 좌절할 필요 없다. 다음 버스가 반드시 온다. 중요한 것은, 그 버스를 타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앞으로도 그는 교육자로서 더 성장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군에서 쌓은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며, 제2의 인생에서도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나다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㉞



구종수 예비역 해군 중령의 인생 법칙

1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실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남을 바꾸려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론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나를 바꿔가다 보면 세상과 더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유연해진 자신의 발견뿐만 아니라 더 멋지고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2

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공에 대한 생각과 성공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은 ‘매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하고 기쁨을 느낀다면 작은 성취가 모일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성공을 위한 나의 열정과 노력

2024년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 공모전 장려상

조용기 예비역 공군 상사

조금은 이르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여보, 나 전역하고 군무원이나 다른 일 해볼까?”

“당신이 해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2020년 2월 어느 날,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 그리고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병과 특성상 만기 전역 후 나이를 고려하면 인생 2막을 과연 잘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부호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짧은 정년, 그리고 치열한 진급 현실, 커가는 자녀들의 학업 문제 등... 조금은 빠른 감이 있었지만, 남들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결심을 굳혔고 그런 고민을 알고 있던 아내가 흔쾌히 허락해 준 덕분에 저의 전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며

부서 과장님은 극구 만류하셨으나 저의 확고한 신념을 보시고 전역지원서에 서명을 해주셨고, 남은 연가를 사용하여 3

월 중순부터 전직교육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변의 전직교육 중인 인원들의 권유로 국방전직교육원과 제대군인지원센터에 구직등록 및 진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직교육원의 상담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조언으로 막막하기만 했던 전직 계획을 무리 없이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중순에 있을 군무원 시험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서둘러서 인강과 교재를 지원받아 집 근처 도서관을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것으로 전직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자격증 시험 등으로 아주 오랜만에 학업을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군수직렬 경채 군무원 TO가 4명밖에 되지 않아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왔습니다. 중간중간 ‘내가 과연 높은 경쟁률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너무 경솔하게 전역을 했나 하는 생각이 수차례 들었습니다. 어느덧 7월이 되었고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긴장하면서 시험을 보았고 합격자 발표일에 높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4명의

전직 목표

1. 육군 군수직렬 경채 군무원 임용
2. 보유 자격증 활용 공공기관 취업
3. 군수(물류직 등) 관련 사기업 취업

컷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것을 보고 한없이 좌절했습니다. “아~ 이제 난 어떡하지.”

조급함에 방향성을 잃어가고

후유증은 꽤 오래갔습니다. 다음 시험을 보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고 당장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호기롭게 큰소리쳤던 제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다시 전직교육원과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전직 목표가 처음부터 어긋나니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전직교육원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방법 등을 교육받고 다음 시험 전까지 취업을 한 후 시험 준비를 병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공군취업사이트,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공고 등을 서치하면서 취업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24년의 군 생활에서 받았던 보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과 보유 자격증 대비 한정된 취업 현실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반 기업체 1곳과 마산수협에 원서를 지원하였지만,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 탓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면접 때문인지 쉽게 합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모두 바닥에 떨어졌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아무 데나 최대한 많이 지원하자.’ 그렇게 뒤죽박죽 되어버린 저의 전직 목표는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찾아가자

여러 차례 이곳저곳 지원을 한 결과 간절히 원했던 곳은 불합격을, 합격한 곳은 생각했던 처우가 다소 아쉬워 취업을 포기해 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막상 24년간 병과에서 수행했던 직무에 가까운 기업체도 많지 않았고 인사 가점을 위해 취득했던 자격증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한 경험도 부족했었습니다.

각종 취업사이트에서 직접 서치해서 지원한 업체와 지원센터에서 추천해 준 업체까지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횟수가 어느덧 연말에 다다르니 30여 군데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중간중간 채용이 확정된 업체에도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개월 정도 출근을 해봤으나 적성과 급여의 만족도가 낮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성과는 없고 웬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2023년 1월 31일부 전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경제적인 부분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무엇인지 모를 조급함에 방향성을 잃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나에겐 아직 시간이 남았다.’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

축적된 경험치의 발견

24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가장 어울리고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부서장 역할 수행으로 병사들을 면담하고 관리했던 경험과 당직 근무 간 병력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중요

보유 자격증

1. 위험물산업기사
2. 지게차운전기능사
3. 일반행정사
4. 빅데이터분석실무
5. 가스안전관리자
6. 소방안전관리자 2급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과 연계하여 가장 근접하는 분야에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응시원서에 들어가는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를 해당 직무에 특화되도록 쓰고 또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8개월간 30여 군데의 원서를 작성하다 보니 어느덧 작성 실력이 부쩍 늘어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면접을 경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용 암기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오다 보니 누가 봐도 외우거나 급조해서 답변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겠구나 하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8개월간의 전직 기간 중에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전직교육원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모두 경험하며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치를 축적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본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의 결실 "합격"

어느덧 전역일이 다가왔고 이제는 정말 제2의 직업을 본격적으로 도전할 시간이 왔습니다. 부서장 역할 수행으로 병사들을 면담하고 관리했던 경험과 당직근무 간 병력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과 연계하여 가장 근접하는 분야에 지원하고자 마음을 먹고 공고를 확인하던 중, 고등학교 기숙사의 지도교사 직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의 일과 후 생활지도와 환자관리, 화재 및 야간 우발상황 대처에 대한 업무였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응시원서 작성 시 중점사항

1. 이력서는 사소한 경력이나 자격증이라도 빠짐없이 작성

2. 자소서는 본인의 경력, 보유자격, 가치관,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면접 1분 자기소개 시 적극 활용(기본 틀에서 기관에 따라 변형)

3. 직무수행계획서는 채용기관에서 제시하는 직무수행 내용을 누락 없이 작성

: 막연히 "최선을 다하겠다, 잘할 수 있다"보다는 본인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 (실제 면접 시 경험/사례 질문 많음)



면접 시 중점사항

1. 깔끔한 복장과 두발 준수

: 어두운 색깔의 복장보다는 밝은색 정장 착용과 현역 수준의 두발 권장 (실제 건강해 보인다는 면접위원의 발언을 몇 차례 들었음)

2. 1분 자기소개는 자신감 있고 예의 있게 발표

: 답변 예) "먼저 OO 기관의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준비하지 못한 질문에 대한 유연한 대처

: 답변 예)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면접이 끝나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준비하기

: 답변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꼭 채용해 주십시오. 추후 면접관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채용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실제 추후에 그 면접관에게 조심스레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감과 믿음감이 생겼다는 의견을 들었음)



바탕으로 문제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 제출은 그동안 작성했던 기본적인 틀에 군과 기숙사학교의 유사성을 기술하였고, 그에 따른 제 경험을 어필하였습니다. 무난히 서류에 합격하고 면접에 임하여 그동안의 면접 스킬로 긴장감 없이 자신 있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는지 7명의 면접 대상자 중 최종 합격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고, 현재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교직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수한 자원입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사회는 지옥이다"였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기술병과 자원들은 일반/전투병과 자원들보다는 본인들의 보유한 기술과 자격을 바탕으로 훨씬 다양하고 처우가 좋은 직장으로 전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병과로서 선택의 폭이 좁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직 기간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낀 점은 업체와 기관들이 직업군인에 대한 좋은 인상과 더불어 책임감을 높이 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 지원자보다 분명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전직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수한 자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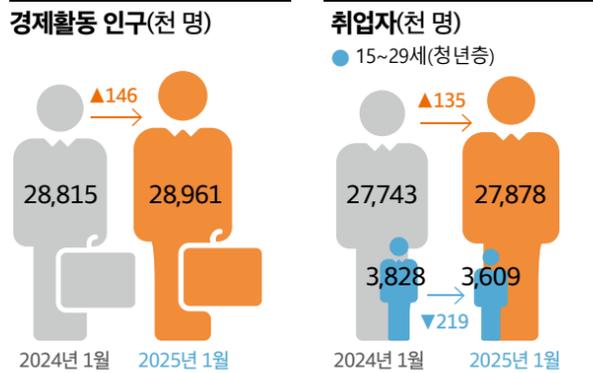
시행착오는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직무를 선택하고 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전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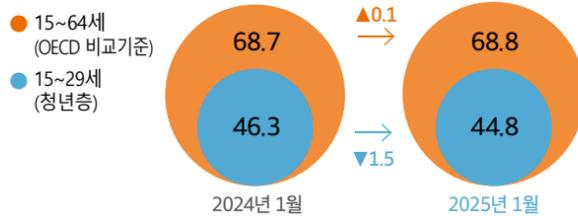
2025년 한국 고용시장 전망 살펴보기

2025년 한국의 고용시장은 전반적인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8.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는 1,08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천 명(1.0%) 증가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6.0%로 변동이 없다.

2025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고용률(%)



실업자(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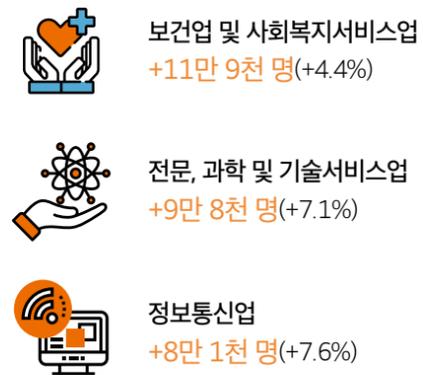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5년 1월

산업별 취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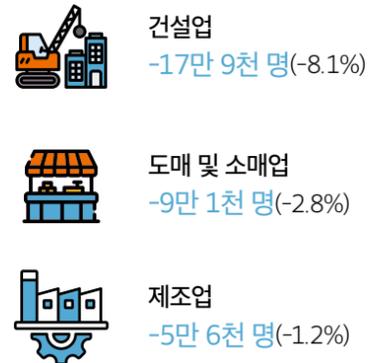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정책, 인구 구조 변화로 산업계 전반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1%)과 정보통신업(+7.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4%)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건설업(-8.1%)과 도매 및 소매업(-2.8%), 제조업(-1.2%)에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증가 △



▽ 감소 ▽



주요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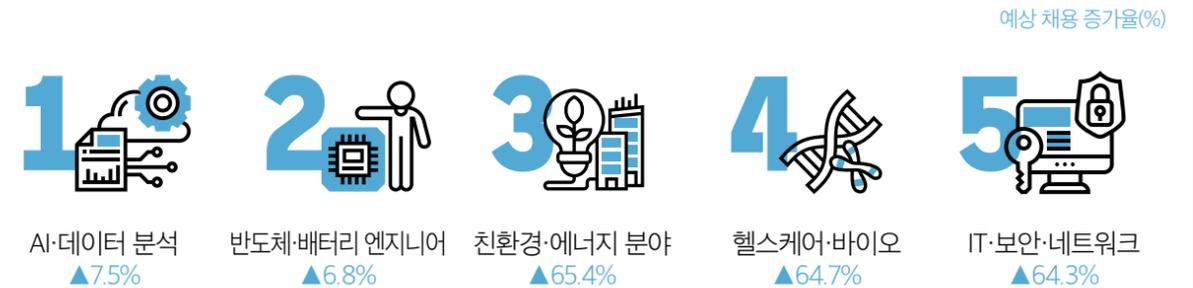
- ☑ 디지털 전환 →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산업 고용 증가
- ☑ 친환경 정책 → 전기차·이차전지 등 친환경 관련 산업 확장
- ☑ 인구 구조 변화 → 의료·복지 및 교육 분야 고용 증가



분야별 인력 채용 전망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정보통신, 환경 관련 분야의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 형태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5년 채용 수요가 높은 직군 TOP5



주목해야 할 채용 트렌드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청춘, 꿈을 향해 날아오르다 청년 창업의 A to Z

청년 창업은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202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트렌드가 맞물리며, 청년 창업은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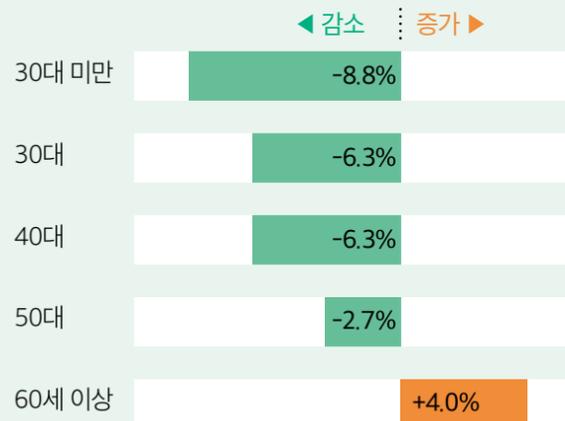
글 편집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 청년 창업

2020년 이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청년 세대는 고용 불안, 취업난 심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청년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바로 '창업'이라는 도전적인 길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청년 창업 기업 수는 전년 대비 11.41% 증가하며 49만 512개를 기록했다. 이 중 서비스업이 45만 5,968개로 전체의 92.68%를 차지했다. 이후에도 창업 기업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서비스업 창업이 전체의 90%를 넘나들며 청년 창업의 대표 분야로 꼽힌다. 서비스업의 증가 이유는 소득 증가와 소비 패턴 변화,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꼽을 수 있다. 또 서비스업 중에서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이 용이하며 경기 불황 시 생계형 창업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24년 상반기 연령별 창업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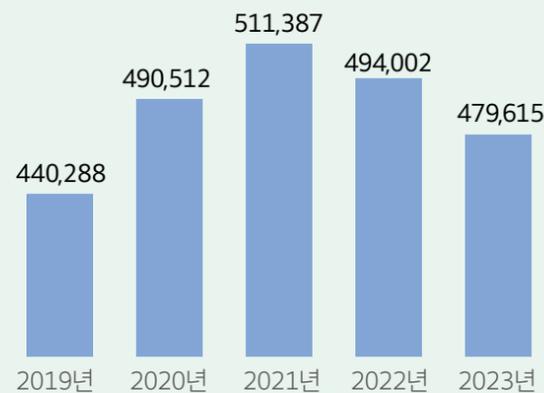


※ 2023년 상반기 대비

연도별 청년 창업 기업 수

39세 이하 창업 기업 수(개)

출처: 중소기업부, 창업기업동향



청년 창업의 든든한 버팀목: 정부의 지원 정책

정부는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하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창업 자금 지원

예비창업패키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에게 최대 1억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초·중기 창업패키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교육 및 멘토링

창업사관학교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전문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9개 센터에서 창업 코칭, 네트워킹,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K-Startup 멘토링 전문가와의 1:1 멘토링을 통해 사업 전략, 마케팅, 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IP디딤돌·IP나래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간 및 인프라 지원

창업보육센터 전국 각지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사무 공간, 장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메이커 스페이스 제조 기반 창업자를 위한 제작 공간과 기술 지원으로 제품 개발을 돕는다.

기타 혜택

세제 혜택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판로 개척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2025년 달라진 청년 창업 지원 정책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만 39세 이하로 제한되었던 지원 대상 연령이 **만 45세 이하로 확대**되었다.
- 지원 금액 상향** 창업 초기 자금 지원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역 특화 지원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청년 창업 성공의 길: 유망 업종과 성공 팁

창업 시장은 청년의 패기로만 도전하기에는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만큼 유망한 업종을 분석하고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돼야 창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청년 창업 유망 업종

- IT/SW** 모바일 앱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콘텐츠** 웹툰, 웹소설, 유튜브 콘텐츠 제작,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D2C 브랜드는 비대면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 푸드테크** 배달 서비스, 밀키트, 비건 푸드는 식품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건강 관리 앱, 맞춤형 운동 서비스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소규모 투자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

청년 창업 성공을 위한 전략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금 지원과 멘토링 프로그램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K-Startup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장 조사와 차별화된 아이디어

유망 분야라 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트워킹과 협력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IR(Investor Relations) 데모데이를 통해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동료 창업가들과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전과 혁신의 이야기: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

다양한 청년 창업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끈기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부 지원 활용, 데이터 기반 전략,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성공에 닿을 수 있었다. 청년 창업가들에게 영감을 주며, 도전과 혁신이 성공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를 모았다.



온라인 식료품 쇼핑몰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는 2015년 신선 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 '마켓컬리'를 창업해 유통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물류 시스템과 냉장 보관 기술에 투자해 품질을 유지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얻었다.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

공대선 대표는 2018년 올인원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을 창업해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개척했다. 한 번의 정기 구독으로 재테크부터 창업·부업, 자기 계발 등 5,300개 이상의 클래스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소상공인 금융 플랫폼 <페이이어>

박준기 대표는 소상공인들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간편 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이어를 설립했는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로 인정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

김용현 대표는 사용자들이 근처 이웃과 물품을 사고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당근마켓을 2015년 출시했다.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하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더 알고 싶다면?

창업 단계와 업종에 따라 창업 자금,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적절한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자금, R&D 지원
2.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창업기업 보증, 창업대출, 스타트업 투자
3.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기술창업기업 보증, 창업투자 지원
4. 한국벤처투자(www.kvic.or.kr): 모태펀드 운용, 벤처캐피털 투자
5.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www.koef.or.kr): 청년 창업 교육, 멘토링, 창업문화 확산
6. K-Startup(www.k-startup.go.kr): 정부 창업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제공

여성 제대군인, 군 경험이 강점으로 빛나다!

글 박지연 작가



Q 여성 군인으로서 보람 있는 생활을 해왔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진급의 한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갈망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전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막상 사회를 향해 나가려니 불안하기도 합니다. 군 경력을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24시간 비상 대기와 훈련, 잦은 당직, 가족과의 분리 등 여성 군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여성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39.9%로, 남성 제대군인 57.9%(2018년 기준)보다 약 20% 포인트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40대의 경우 경력 단절 여성으로 간주하여 취업에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군 경험은 오히려 특별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군 경험을 어떻게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 경험, 이렇게 강점으로 만드세요

1 조직 관리 및 리더십

50명 규모 부대의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던 경험은 프로젝트 관리 역량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여 훈련 일정을 조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던 경험은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과 매우 유사합니다.

2 조직 적응력

95% 이상이 남성인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은, 어떤 조직 문화에서도 적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달 새로운 전입 장병들과 협업하며 단기간에 팀워크를 형성했던 경험은, 기업에서 새로운 팀원들과 빠르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 제대군인의 진출 분야

1 군 관련 직종

- 비상계획관
- 예비군 지휘관
-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 학군단 운영 대학교 예비군연대본부 행정 담당관

2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

- 기업 경영 지원 부서(재무·회계 역량 활용)
- 관리·인사·사무행정직(조직 적응력, 인사·정책·예산 관련 업무 경력 활용)

3 의료 및 보건 분야(간호장교 출신)

- 병원 간호사
- 학교 보건 교사
- 공공기관·민간기업 산업현장 보건관리자

정부의 새로운 지원 제도 적극 활용하기

1 전직 지원금 지원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대상 전직 지원금 지원
- 2025년도 중기 58만원, 장기 81만원
- 취업 준비 기간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1:1 맞춤형 취업 상담

-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사와 상담
-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 설계
- 구체적인 취업 전략 수립

3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교육 제공
- 자격증 취득 시 취업 경쟁력 확보

4 군 경력의 인정

- 임금 산정 시 경력 인정
- 경력 단절 불이익 최소화

☑ 유연근무제 기업 정보 제공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정보 제공
 - 육아휴직 제도 활용도가 높은 기업 추천
 - 재택근무 가능 기업 정보 제공
- (출처: 국가보훈부, 2024년 성과관리 시행 계획)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1 군 경험을 강점으로 부각하기

“7년간의 군 생활에서 체득한 철저한 시간 관리와 목표 지향적 사고방식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배경의 부대원들과 협력하며 쌓은 의사소통 능력은 어떤 조직에서도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2 경력 공백 설명하기

“육아 기간 온라인으로 어학 및 마케팅 관련 공부를 하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또한 향후 취업하려는 업계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틈틈이 준비해 왔습니다.”

3 위기 대응 능력

“동료 여성 부대원의 고충 상담 요청과 응급 상황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의무대와 협조하여 의료지원을 받도록 조치하고, 다른 부대원들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재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양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동안 여성으로서 군에서 경험한 것들은 분명,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다양한 지원제도를 미리 활용해 둔다면, 사회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뽐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기관을 활용하세요

1. 제대군인지원센터(Vnet)

웹사이트 www.vnet.go.kr
대표전화 1666-9279
지원내용 맞춤형 취업 상담, 채용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2. 국방전직교육원

웹사이트 www.moti.or.kr
대표전화 1588-9402
지원내용 전직 교육, 맞춤형 컨설팅, 전문 교육 프로그램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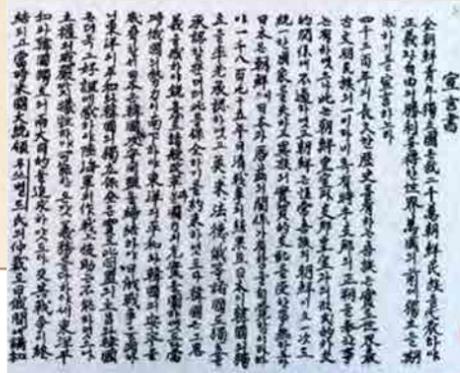
웹사이트 saeil.mogef.go.kr
대표전화 1544-1199
지원내용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인턴십 기회 제공

글쓴이 소개 · <티앤북클래스> 대표이자 라이팅 코치로 활동 중
· 『꿈이 있는 엄마의 7가지 페르소나』, 『역마살 엄마의 신호등 육아』 등 다수 출간

광복 80주년 계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글 편집실

3.1 운동과 재일본 동경 조선청년독립단



28 독립선언서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 41번 문항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번엔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해 뜨거운 피를 흘릴 것이니, ... 일본이 만일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면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의 혈전을 선포하노라.

- 재일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 대표 11인 -

- ① 박상진 등이 대한 광복회를 결성하였다.
 - ②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 게재되었다.
 - ③ 독립 협회가 중심이 되어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 ④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가 조직되었다.
 - ⑤ 민족 대표 33인 명의의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 [정답] ⑤번**

일본 동경의 유학생들은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28독립 선언서를 작성해 발표했는데, 이는 3.1운동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민족 대표 33인 중 29인이 태화관에 모여 3.1독립선언서(기미 독립 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이와 관련한 역사 지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재일본 동경 조선청년독립단의 28독립선언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서 발표된 28독립 선언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선언을 주도한 것은 재일본 동경 조선청년독립단이라는 유학생 단체였습니다. 1918년, 일본 동경에 거주하던 조선인 유학생들은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일제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에서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며, 자주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19년 2월 8일, 동경 YMCA 강당에서 600여 명의 유학생들이 모여

28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이들은 선언서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며,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28독립선언은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8독립선언 이후, 재일본 동경 조선청년독립단은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28독립선언은 한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재일본 동경 조선청년독립단의 활동은 한국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28독립선언을 주도한 재일조선유학생들



3.1운동 당시 만세를 외치는 시민들의 모습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조선의 자주독립을 향한 불꽃 3.1운동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하에서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펼친 항일 민족운동입니다. 1910년 국권피탈 이후,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강압적인 무단통치를 시행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족 차별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억압적인 통치에 맞서 한국인들은 의병 활동, 비밀결사 조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해 왔습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은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한국의 독립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독립 선언서는 한국이 자주독립 국가임을 천명하고, 일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며,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독립선언서 발표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남녀노소,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탑골공원 선언식을 계기로 시작된 3.1운동은 같은 날 평양, 의주, 진남포, 정주, 선천, 원산 등 북부 지역에서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중남부 지방에서 주로 일어났고 3월 말 다시 북부지방에서 만세 시위가 이어졌어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만세 시위가 절정에 달했고 5월까지 전국적으로 1,500회 이상 만세 시위가 이어지며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처럼 3.1운동은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후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1운동은 한국인이 자주독립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민족의 외침과 독립의 의지 3.1 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3.1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서는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으며,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독립해야 함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은 비폭력과 평화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인류 보편적 정의와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했어요. 선언서는 우리 민족이 단결하여 독립을 쟁취할 것을 강조했고, 이는 3.1 운동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만세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항일운동과 광복운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어요. 3.1 독립선언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우리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㉔



3.1 독립선언서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인테리어 디자이너 & 건축사

글 편집실

건축과 인테리어는 단순히 집을 짓고 꾸미는 일이 아니다. 공간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는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 담겨 있다. MBC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지강희(이세영)와 tvN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의 건축사 최승효(정해인)는 바로 그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본다.



사진 출처: tvN '엄마 친구 아들'

공간에 감성을 더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자인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다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의 지강희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통해 낡은 모텔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그녀는 단순히 낡은 가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모텔이라는 공간이 가진 역사와 분위기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역할은 공간을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다. 실내의 기능성과 미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며,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생각해 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의 인테리어는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색감을 사용하고, 동선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이동이 편리하도록 구성된다. 반면, 카페나 호텔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도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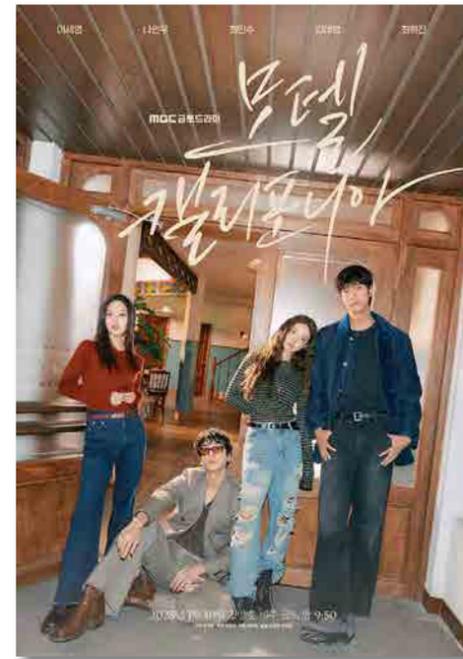


사진 출처: MBC '모텔 캘리포니아'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성장 과정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학, 공간디자인, 환경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을 전공하거나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학위가 없어도 포트폴리오와 실무 경험을 쌓으면 충분히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인테리어, 스마트 인테리어 등의 분야가 각광받으며 더욱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3D 모델링,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설계 능력도 중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자격증

- 실내건축기사(국가공인)
- 건축도장기능사
- 컬러리스트기사
- 공간디자인 관련 민간 자격증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주요 업무



클라이언트 상담 및 니즈 분석

- 공간의 목적과 분위기 설정
- 사용자의 동선과 편의성 고려



디자인 기획 및 설계

- 컬러 및 소재 선정
- 가구 배치 및 공간 활용 계획
- 조명 및 소품 선정



3D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작업

-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클라이언트와 협의



시공 관리 및 감리

- 공사 현장 확인 및 시공 과정 점검
- 예산 및 일정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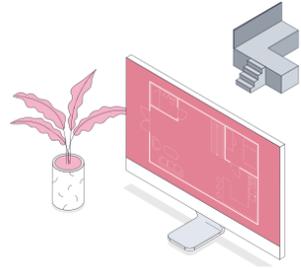


트렌드 분석 및 지속적인 연구

-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 및 기술 습득
- 친환경 디자인 및 스마트 홈 기술 적용



건축의 본질을 탐구하는 건축사



공간을 넘어, 삶을 설계하다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의 최승효는 대형 건설사가 아닌, 작은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다. 그는 화려한 마천루보다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건축을 지향하며, 주택이나 상업 공간을 설계할 때도 건물 자체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건축사는 건물의 구조와 기능뿐만 아니라,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전문가다. 단순한 건축 설계가 아니라, 법규와 기술, 환경 요소를 모두 반영해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건축계에서는 친환경 건축과 스마트 건축이 주요 화두다. 태양광 발전, 패시브 디자인(에너지 절약형 건축), 모듈러 건축(조립식 건축) 등의 기술이 발전하며, 건축사들은 이러한 요소를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건축사의 주요 업무



건축 설계 및 도면 작성

- 공간의 형태와 구조 결정
- 실내외 공간의 기능적 배치



건축 법규 및 허가 절차 검토

- 건축법 및 안전 기준 준수
- 건축 허가 및 인허가 절차 진행



시공 및 공정 관리

- 시공 과정 감독 및 품질 관리
- 건축 자재 및 공사 일정 조율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설계 연구

- 친환경 건축 자재 및 에너지 절감 기술 적용
- 탄소 배출 저감 및 에너지 효율성 고려

건축사가 되는 길

건축사가 되려면 5년제 건축 학과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 과정을 수료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고 국가공인 건축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은 상당히 어렵지만, 한 번 자격을 취득하면 업계에서 강력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자격증

- 건축사(국가고시)
- 건축기사
- 친환경건축전문가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관련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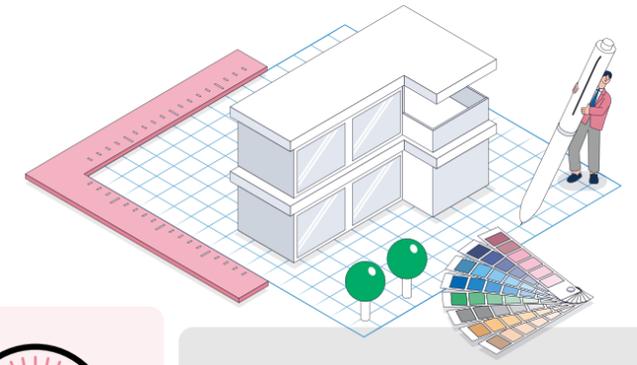
인테리어 디자이너 vs 건축사: 무엇이 다를까?

구분	인테리어 디자이너	건축사
주요 업무	실내 공간 디자인	건물 전체 설계 및 시공 관리
학습 분야	실내 건축, 공간 디자인	건축 공학, 구조 설계
필요 역량	디자인 감각, 공간 활용 능력	법규 이해, 구조 설계 능력
진출 분야	주거, 상업, 공간, 호텔, 병원 등	주택, 상업, 건물, 공공시설 등

디자인과 건축, 그리고 사람

공간은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사는 단순히 벽을 세우고 가구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 감정을 디자인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 드라마 속 지강희와 최승효처럼,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은 더 아름답고, 편안해진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창의력과 노력은 필수! 드라마 속 멋진 주인공들처럼, 자신만의 공간을 창조해 보는 건 어떨까? 🏡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임금 수준 및 직업 만족도



건축사의 임금 수준 및 직업 만족도



자료: 워크넷(2021)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사에 대해 더 살펴보고 싶다면?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사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는 큐넷 직업백과를 참고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건축사

챗 GPT 시대, AI 활용법

2023년 초부터 열풍을 일으킨 챗 GPT는 어느새 일상과 업무의 필수 도구가 되었다. GPT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회사의 전략 결정 회의와 보고서 작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하지만 이후 MS의 코파일럿, 구글의 제미나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등 다양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졌다.



더군다나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려면 복잡한 ‘프롬프트’를 익혀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직업이 주목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GPT 활용법을 반드시 어렵게 배워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01 어떤 AI를 선택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AI를 직접 사용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것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AI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없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다. GPT를 최우선으로 사용하자. 생성형 AI 대부분이 GPT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하나만 잘 익혀도 다른 AI 서비스에 쉽게 응용할 수 있다.

02 매 순간 사용하자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에 반드시 OpenAI에서 제공하는 공식 GPT 앱을 설치하자. (GPT를 검색하면 광고비를 지불한 유사 앱들이 먼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데스크톱에도 설치하면 더욱 편리하다. 간단한 맛집 검색부터 회사 업무를 위한 경쟁사 자료 조사까지, 검색하듯이 GPT를 활용하자. 특히 2025년 초부터 GPT 무료 버전에서도 ‘웹 검색’ 기능이 제공되면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03 ‘새로운 이야기 새 창에서’ 원칙을 기억하자

GPT는 매우 영리한 비서지만, 최신 뉴스를 물어봤다가 번역을 시키거나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면 이전 대화의 데이터가 남아 있어 엉뚱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카카오톡에서 여러 채팅창을 활용하듯, 새로운 주제의 대화는 새 창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04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한 ‘무적의 프롬프트’를 기억하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외우고 활용할 수 있는 ‘무적의 프롬프트’가 있다. 프롬프트는 역할 지정, 행동 지정, 시작하는 말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GPT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단순히 ‘지금부터 나와 영어 공부를 하자’ 라고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한 대화가 진행되어 집중적인 학습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자.

- (1) 역할 지정: 너의 역할은 ‘영어 선생님’이다. 영어를 배우길 원하는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친 경험이 있다.
- (2) 행동 지정
 - ① 응답자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 ② 회화, 시험 영어, 문법 등 어떤 학습을 원하는지 묻는다.
 - ③ 응답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레벨을 결정하고 학습 방향을 4~5줄로 설명한다.
 - ④ 설명이 끝난 후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한다.
- (3) 시작하는 말: 준비가 되었다면, 반갑습니다. 저는 애나예요. 지금부터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 볼까요?라고 말한다.

이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영어 선생님 ‘애나’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역할 / 행동 / 시작하는 말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다양한 상황에 맞춰 원하는 내용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원하는 대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새 창을 열어 다시 입력한 후 대화를 시작하자.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금부터 바로 사용해 보는 것이다. 익숙해질수록 더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할 수 있고, 업무나 일상에서 더욱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

글 이임복

현)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 인터렉티브박스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MWC 모더레이터, 한국금융연구원 겸임교수, 유튜브 일상 IT 운영자



바다와 역사가
만나는 곳,

진해군항마을로 떠나는
시간 여행

경남 창원

글 박선경 사진 권진혁

진해에는 시간이 머무는 마을이 있다.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기록사랑마을 중 하나인 '진해군항마을'. 100년 전 개발된 근대도시로, 그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골목마다 자리한 근대 건축물과 오래된 공간들이 과거와 현재를 잇고, 바다와 벚꽃이 함께하는 풍경이 계절마다 새로운 얼굴을 보여준다.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곳이 품고 있는 시간과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다.

중원로터리, 여덟 갈래 길 위의 역사

진해군항마을은 해군의 도시, 진해의 정취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마을 곳곳에는 과거 군항도시로서의 흔적이 깃들여 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은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건다 보면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든다.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그 속에서도 피어난 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깊은 감동을 준다.

진해군항마을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중원로터리는 여덟 갈래 길이 만나는 원형 교차로다. 이곳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1912년 일본이 계획적으로 설계한 근대 도시의 중심이었다. 지금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원로터리를 지나 골목으로 들어서니, 근대 건축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진해의 근대사와 군항마을의 변천사를 고스란히 만날 수 있는 진해군항마을 역사관은 마을 여행의 백미다. 1912년 지어진 이 건물은 원래 일반 상점으로 사용되다가 광복 후 노인정으로 활용되었고, 2012년에 역사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진해의 군항도시로서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그 시절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간이다. 특히 넓은 사진 속 거리와 건물들은 지금의 풍경과 맞물려, 이곳이 지나온 시간을 보여준다.

CHANGWON,
GYEONGSANGNAM-DO

기억을 품은 공간들, 흑백다방과 원해루

역사관을 나와 거리를 걷다 보면, 일본식 건축 양식의 건물들이 눈에 띈다. 그중에서 흑백다방은 1912년 지어진 목조건물로, 1960~70년대에는 예술인들의 사랑방이자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했다. 이중섭, 유치환, 김춘수, 서정주 등 당대의 예술인들이 이곳에서 교류하며 작품을 논하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시절의 낭만이 느껴진다. 지금은 운영되지 않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온기가 남아 있는 듯하다.

붉은 지붕의 육각집은 중국풍의 3층 건물로, 1920년대 당시 상류층이 드나들던 고급 요정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식당으로 변모하여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육각집 맞은편에는 원해루가 있다. 원해루는 일제강점기에는 사진관 겸 시계점으로 사용되다가 광복 후에는 중국 음식점으로 바뀌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제스 전 대만 총통이 이곳에서 식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그 역사적 가치를 더한다. 그러나 이제는 문을 닫고 시간의 흐름 속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대신 중국음식점이 마을 곳곳에 있어 원해루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장병들의 소울 푸드이

기도 한 자장면과 짬뽕 한 그릇을 먹다 보니 이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추억을 공유하는 순간 같았다.

제항산 모노레일과 전망대에서 바라본 진해

진해군항마을 골목마다 살아 있는 역사를 만난 후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보이는 제항산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는 길목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진해우체국이 있다. 1912년 지어진 진해우체국은 현관문의 러시아풍 원형 아치와 독특한 건축 양식이 인상적인 건물이다. 현재는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볼 수 없지만, 공사가 마무리되면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제항산 모노레일 탑승장에 다다랐다. 천천히 오르는 모노레일에서 내려다본 진해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정상에 도착하자 바다와 도시, 그리고 저 멀리 해군사관학교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진해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시간과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려본다.

원해루



시간을 걷는 여행, 다시 찾을 이유가 있는 진해

진해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한창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진해역을 지나자 멀리서도 위용을 드러내는 동상이 보인다. 1952년 전국 최초로 건립된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다. 북원로터리 한복판에서 진해를 지키는 충무공 동상은 6·25전쟁 당시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제작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동상 앞에서 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되새겨보며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진해군항마을은 그저 옛 건축물이 남아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으며, 지켜야 할 이야기들이 있었다. 봄날 벚꽃이 만개하는 어느 날, 다시 이곳을 찾겠다는 다짐을 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

📍 진해군항마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창선동
http://jinhaegunhang.modoo.at/



진해군항마을역사관



진해 충무공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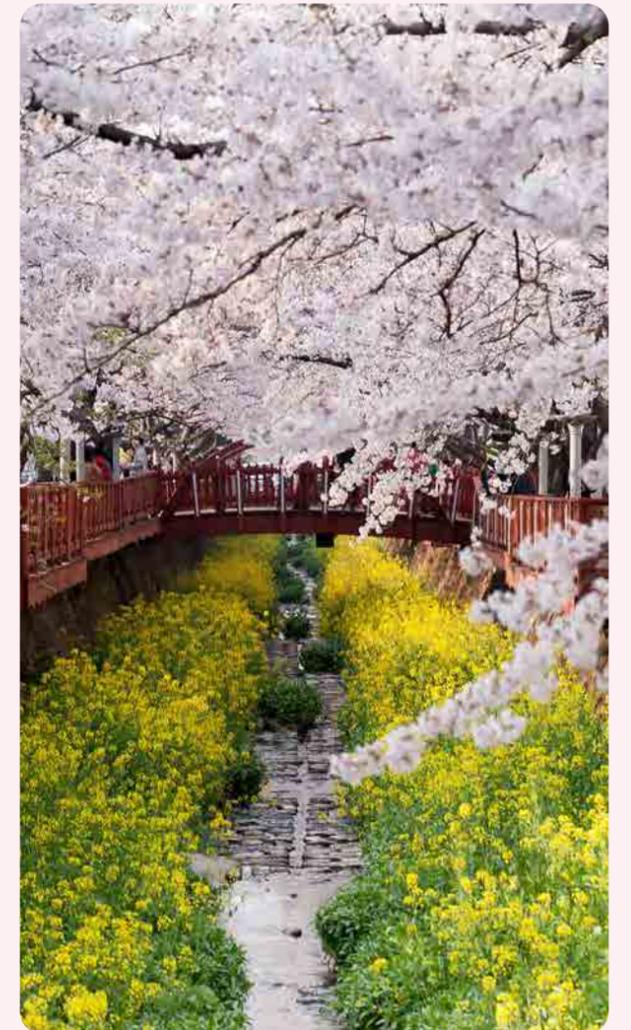
벚꽃이 흐드러지는 봄, 진해에서 열리는 축제



제63회 진해군항제: 3월 29일~4월 6일 진해구 일원

※ 개막 행사: 3월 28일 18:00 진해공설운동장

진해의 봄은 특별하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벚꽃이 피기 때문이다. 벚꽃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올 이들을 위해 3월 28일 오후 6시 진해공설운동장에서 화려한 개막 공연과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4월 6일까지 진해구 일대에서 '제63회 진해군항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며, 특히 진해군악대의 특별한 공연과 이충무공 관련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활기찬 부산에서 새출발!
제대군인의 든든한 조력자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글 박선경 사진 권진혁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물류 중심지로, 다양한 산업과 일자리 기회가 공존하는 곳이다. 부산의 활기찬 도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제대군인들이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가 함께한다.



Q.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07년 4월 12일 개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역 근처에 별도로 위치하다가 2013년 4월 29일 부산지방보훈청 청사 4층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센터는 청사 내 문서고로 사용되던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변경하여 약 47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선임 상담사 4명, 전문 상담사 1명, 일반 상담사 2명, 군 경력 상담사 1명과 공무원 3명 등 총 11명이 근무 중입니다. 상담사는 취업상담팀(4명), 기업협력팀(3명), 교육행정팀(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Q.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A. 교육행정팀은 제대군인 회원들의 전직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취·창업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군부대 순회 상담을 진행하고 직업능력개발교육비를 지급하여 개인의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팀은 제대군인 회원별 1대1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창업 상담을 제공하며, 전직 예정자들에게 보훈제도, 수혜사항 및 신청 절차 등 지원제도를 철저히 안내합니다. Vnet 회원 가입 시 초기 상담을 강화하여 전역 후 빠른 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지원서 클리닉, 모의 면접, 찾아가는 순회 상담(월 1회), 전직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회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협력팀은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채용박람회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자체 잡매칭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유망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필요시 동행 면접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전국에 10개 센터가 있는데, 부산센터만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A. 부산센터는 제주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팀은 지역적 특성상 회원들이 센터의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소 연 1회 제주 지역을 방문하여 1박 2일 동안 전직 지원 워크숍 및 취·창업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제주지역 기업체 인사 담당자 간담회, 군부대 순회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팀은 능동적인 MBTI 및 STRONG 검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검사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바일 검사를 지원하여 상담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보훈 관서가 없는 양산 지역에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취업 워크숍 및 순회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협력팀은 팀 간 협력을 강조하며, 상담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회원들의 희망 직업과 일자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해양기술드론(주)의 요청을 받아 회원을 추천하여 첫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대군인 회원분들의 취업이 곧 보훈의 시작'이라는 목표 아래, 센터 전체가 ONE-TEAM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센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창업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A. 리:스펙 제대군인 3월호에 소개했는데요.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초빙교수 지원 사례입니다. 취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했습니다. 첫째, 초빙교수 적합 인원을 사전에 관리하고 인력풀을 구축했습니다. 둘째, 채용 공고 이전에 적정 인력을 대상



으로 심층 상담과 진로 및 경력 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지원 서류 작성(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진행했습니다. 넷째, 학교 측과 사전 협의하여 인력풀을 제공하였으며, 공개채용 시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다섯째, 최종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여섯째, 최종 선발 후에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했습니다.

Q.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현재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 수는 총 7,612명입니다. 회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역 후 3년 이내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미취업자, 기간제 근로자, 또는 창업 1년 미만인 회원 등입니다. 국방부 전직기본교육을 수료한 전역 예정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과정은 취·창업 목표와 연관된 공채시험, 국가 기술·기능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이 포함되며, 보훈부에서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교육이라면 본인이 20만원을 부담하고 보훈부에서 8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신청서, 교육비 납부 영수증, 교육 수료확인서(수료 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창업자는 사업소득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창업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창업 지원정책 정보 제공,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귀촌 프로그램을 실시(농촌, 어촌, 산촌의 귀촌지원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다양한 탐방)하는 등 다양한 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Q. 올해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A.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대군인 개개인의 취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원활한 팀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양산 지역 찾아가는 순회 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양산 거주 회원들이 울산 순회 상담에 참여해야 했으나, 작년 7월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상담에서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분기 1회 정례화하여 운영하며, 추가로 워크숍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협력팀은 기업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 및 집단 일자리 발굴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삼성희망네트워크, 실버종합물류 등 사회적 경제지원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하여 시니어 제대군인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올해 삼성희망네트워크에 70여 명이 지원해 현재 27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센터 자체 채용박람회인 '일자리드림 데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제2회 리:스펙 제대군인 79(친구) 잡매칭 데이'를 개최하여, 더 많은 기업과 제대군인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울산·양산 등 지역 내 채용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센터를 홍보하고, 제대군인의 채용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작년 처음으로 운영한 양산지역 채용박람회 홍보부스를 기반으로, 올해는 울산 지역 채용박람회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Q.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제대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센터의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역 후에는 주변 선·후배의 경험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담당 상담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조언을 듣고, 전직 관련 공공기관과의 상담에 열린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센터는 국가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군 생활 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센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는 회원들이 원하는 지역과 산업, 직무에 맞는 채용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대군인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제대군인 여러분,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와 함께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세요!”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위치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부산지방보훈청 4층
운영 09:00~18:00(주말, 공휴일 휴무)
문의 1666-9279(군인친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담사,
든든한 부산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김건희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장

2024년 3월 4일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장으로 부임한 김건희입니다. 이전에는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경남서부보훈지청(진주 소재)에서 보상과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유공자의 등록, 보상, 복지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첫 여성 센터장으로, 부임 후 제대군인 회원들의 성공적인 전직을 최우선 목표로 취·창업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체 방문, 위탁교육 기관 현지 조사, 외부 워크숍 사전 점검 등에 동행하며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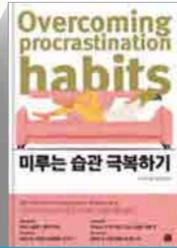
부임 후에는 분기 1회 팀장급 회의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작년 7월 9일에는 자체 잡매칭(79데이) 행사를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센터 내부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담사, 든든한 부산센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N T E R V I E W



푸릇푸릇 생동하는 봄 나를 성장시키는 책



미루는 습관 극복하기

리스창 | 정민미디어

많은 이가 미루기병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번번이 끝내지 못한다. 이로부터 분노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길 반복하며 고통스러워한다. 이 책은 미루기병의 형성 원인, 각종 유형 및 증상 등을 다루면서 이해하기 쉬운 이론과 실사례를 곁들여 전방위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일의 철학

빌 버넷, 데이브 에번스 | 갤러온

애플에서 제품 디자이너와 경영 컨설턴트로 활약한 후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로 돌아온 두 명의 반짝이는 괴짜 교수들의 가르침은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진정한 일의 가치'를 발견하는 법, '일과 삶'에 대한 균형 잡힌 철학을 통쾌한 이야기와 함께 제시한다.

자기 앞의 생

에밀 아자르 | 문학동네

이 책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행'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한다.

한 달에 한 가지, 지구 사랑 실천_대중교통 이용하기

자동차 한 대는 평균적으로 1km 주행 시 약 12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반면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은 같은 거리에서 훨씬 적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버스는 평균 30~4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으니,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자동차보다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은 걷는 시간을 늘려줘 건강에도 이롭다는 사실. 대중교통 이용자는 하루 평균 약 2,000보를 더 걷는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보호해 볼까요?



독자퀴즈

QUIZ

정부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무엇일까?(20~23p 스페셜리스트 참고)

- ① 예비창업패키지 ② 교육 및 멘토링
- ③ 공간 및 인프라 지원 ④ 법률 지원

※ 3월 20일(목)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 주시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 (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5년 2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김지엘(인천 중구), 신현근(경기 양주)
이연수(대전 유성), 이지연(대구 중구)
한기철(경기 군포)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2월호 정답: ②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들의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2025년 3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고광수 대한민국 공군 대위 
1929. 10. 15. ~ 1953. 07. 18.

폭격의 명수로 불리며 6·25전쟁 중 산화한 마지막 공군 조종사

1952년 12월 제10전투비행전대 강릉전진기지에 배치된 고광수 대위(전사 당시 계급 중위)는 F-51D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하며 '폭격의 명수'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1953년 7월 18일 51번째 출격한 고성·시버리 작전 중 산화하며 6·25전쟁 중 전사한 공군 마지막 조종사가 되었다.

고광수 공군 대위의 발자취

- 1949년 6월 육군항공사관학교(現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으로 입교
- 1953년 3~7월 강원도 고성 351고지 폭격 등 국군과 유엔군 지상 작전 지원
- 1953년 9월 1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훈장 추서
- 1958년 11월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